

이덕일의 '역사의 창'



조선구마사와 독도

한국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만 봐도 그렇다. 6종의 지리 교과서와 12종의 공공 교과서가 '독도'를 '다케시마' (竹島)라고 표현하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군 집단성폭행 피해자(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최근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충녕(세종)과 태종이 나오는데 월병·지단·만두 등 중국식 음식을 등장시켜 중국인인 조선인인 것처럼 그려서 시청자들의 항의로 2회 만에 막을 내렸다. 한때 '조선구마사'의 작가가 소속된 '자빙 픽처스 코리아'라는 회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한국대표처와 같은 주소에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과 전 세계에 중국공산당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선전 기관이다. 이 두 사례는 현재 한국사를 둘러싼 지형이 일본과 청이 서로 집어삼키려고 노력하던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협 광복회 학술원장인 김병기 박사는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회를 장악했는가'라는 저서를 저술했다.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했던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과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과제의 일환이었다.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자국사를 난도질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와 신석호가 어떻게 해방 후에도 한국 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 논리와 함께 그 제자들의 사승(師承)관계를 비판한 저서다.

김병기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국장(현 교육부장관)과 참의부 참의장을 역임했던 김승학 선생의 증손자다. 김승학 선생은 60년대 초반까지 생존하면서 심산 김창숙 선생, 오산 이강 선생과 함께 '생존 3거두'로 불렸다. 선생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독립운동에 나섰던 항일 가문이다. 그러나 김병기 박사의 이 책은 제출되자마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F' 등급을 맞았다. 감히 한국의 모든 대학 사학과와 역사 관련 국제기관에서 영원한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들을 비판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필자가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를 비판한 '조선 사편수회 식민사관 비판 I-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도 'F' 등급을 맞았다. 중국은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면서 북한을 중국 강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를 비판하고 한사군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논증한 저서다. 한중연은 중국 동북공정의 주장처럼 한사군은 북한 강역에 있었는데, 왜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느냐면서 'F'를 주었다.

임찬경 박사가 쓴 '독립운동기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독립운동사학의 고대사 인식'과 서양사를 연구한 임종권 박사가 쓴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도

모두 'F' 등급을 맞았다. 한결같이 일제 식민사학과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한 책에 대해서만 'F' 등급을 매긴 것이다. 필자들은 심사자들과 공개 학술 토론을 요구했는데 한중연은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 정권이 바뀌어 이른바 '촛불 정권'이 들어섰다. 촛불 정권이라기에 큰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한술 더 떠서 교육부까지 가세하더니, 왜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극우파 역사관을 비판했느냐면서, 이미 지원한 연구비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가 재집권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흑역사를 촛불 정권 아래의 '교육부와 한중연'이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친일 구조가 약화되었지만 이 분야만은 아직도 1945년 8월 14일 총독부 세상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 내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호언한 것이다. 이 망언에 대해 한중연,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은 끝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점점 구한말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믿을 곳은 한일 무역전쟁에 80% 가까이 참여했던 국민들, '조선구마사'를 2회 만에 문 닫게 했던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백신 접종과 혈전증



임성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한창이다. 유럽에서 AZ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성돼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오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AZ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가운데 혈전 소견이 나왔다. 60대 요양병원 환자로 지난 2월 26일 AZ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6일 숨졌다. 육안 소견으로 혈전이 보고됐는데, 해외에서 잇따른 혈전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까지 지난달 22일 "AZ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 됐다. 따라서 정부는 AZ 백신 접종을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등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 약 28만 8000명을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앞둔 국민들 사이에서 혈전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혈전증은 어떤

어떤 질병일까. 백신과의 연관성에 상관없이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혈전은 생체 내부를 순환하는 혈액 일부가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뜻한다. 발병은 혈류의 느림, 응고 과다, 혈관 손상 등 세 가지 요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임상 상황으로는 입원, 수술, 거동 불가능, 임신, 경구피임약, 암, 감염 등이 혈전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전증이 발생한 장기 위치와 혈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동맥 혈전증'은 조직 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돼 혈류 부족으로 발생하는 허혈 증상이 있고, '정맥 혈전증'은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했으나 되돌아오지 못해 발생하는 울혈 혹은 충혈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혈관을 따라 발적과 통증이 생기거나 한 쪽 팔다리가 붓고 열감이 발생하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심부 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은 국내에서 1000명 중 약 1명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육류 중심 식습관과 고령화로 환자는 증가 추세이다. 증상은 다리가 붓고 저린 것이 대표적인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피부가 붉은 색이나 파랗게 변하기도 한다.

심하면 혈전이 폐 혈관을 막는 폐동맥 색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할 수 있다.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앉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만성질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인 기저 질환 환자, 40대 이상 남성과 임신부에서 발생률이 높다.

진단과 검사는 혈전증 의심 부위에 초음파 검사, CT, MRI, 혈관 조영 검사, 방사선 동위원소 스캔 등 영상 검사로 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혈전이 발견되면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심부 정맥 혈전증'은 주로 초음파 검사를, 폐색전증은 CT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혈전증 치료는 혈전 제거 수술과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혈전 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로 혈류를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은 수술·시술 여부와 상관 없이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데, 치료제는 혈전을 녹여주는 섬유소 용해제와 항응고제가 사용된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출혈 부작용 빈도가 높아 반드시 입원해 전문의 진단과 처방 하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여해야 한다. 이중 호르몬 제제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어도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혈전증 치료에 좋은 음식은 알려진 게 없다. 그러나 치료제로 와파린을 복용한다면 비타민K가 많이 함유된 녹색 채소와 콩, 간 등이 포함된 음식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권하지 않는다.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한 미래 비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광주시는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658억 원을 문화예술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국비 예산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3호 펀드'에 100억 원, '아시아예술 인제 양성' 거점 공간 확보에 40억 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인 '파사드 콘텐츠' 개발에 30억 원 등 총 95건의 콘텐츠에 대한 예산이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광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출기찬 노력으로 이룩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보다 발전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되고 연차별 실시 계획 수립도 내실화될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과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 지원을 다각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이제 그 성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다운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써 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일빌딩 245'를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일이다. 전일빌딩 245는 작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숨은 관광지 7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전일빌딩 245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 상무소각장

내에 설립할 '광주 대표 도서관'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개막했다.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 광주박물관, 광주극장 등의 공간에서 43개국의 69개 팀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대축제이다. 성공을 기원한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문화예술관광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공간으로서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미술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나 '미디어아트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미디어아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공간을 확장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광주 실감 콘텐츠큐브' (금년 12월 완공)와 '광주문학관' (2022년 완공) 건립을 진행 중이다. '광주 대표 도서관' '신창동유적 체험학습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동명 문화마을' '아시아예술정원' '광주 전통생활 음악당'의 건립과 조성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실행 그리고 계획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정책과 비전이 미래 세대의 눈높이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광주시가 시민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社說

'광주 군 공항 이전' 새로운 전기 마련되나

민간 공항 이전 관련 시도 간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전남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시도는 내일 출범하게 되는 범정부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새로운 전기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민간 공항 이전이 보류되고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시도 간 협의의 상황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어제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양 시도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2년여 간 군 공항 이전에 진척이 없자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민간 공항 이전을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일방적 약속 파기'라며 사과를 요구해 온 전남도는 이날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시도는 또한 국무총리실이 주관 하는 범정부협의체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겸 지원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적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시도에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해 왔던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시도 역시 협력을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도 및 지역민 간 공감대 형성과 상생 노력일 것이다. 양 시도는 이제 그동안의 갈등에서 벗어나 정부에 한복소리를 넘으로써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현대미술의 위로 광주비엔날레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개막했다. 비엔날레는 당초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두 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여 개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해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열린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외에도 국립 광주 박물관, 옛 국군 광주병원, 광주극장 등 곳곳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시장을 찾자 전에 전시 음성해설 앱(큐피커)을 내려받으면 좋을 듯하다. 참여 작가들이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한국의 무속신앙 등 사머니즘을 소재로 '치유의 힘'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은 어떻게 표현됐는지 궁금증을

불러일킨다. 과거 미술사를 돌아보면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팬데믹은 새로운 예술사조를 불러왔다. 14세기 창궐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1가량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지만, 당대 유럽인들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신(神) 중심의 중세시대를 마감시키고 '인간'을 재발견하는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또한 현대미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예술의 힘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39일간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관람객들이 이번 비엔날레 작품을 접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無等鼓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다. 단기간에 쉽게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은 투기로 이어지고,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고자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 이들은 그동안 손쉽게 부를 일궈냈다. 부실한 법과 제도는 벼락부자들을 양산해 내는 데 일조했다.

과 투기 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융 수수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가 131명, 부정 당점 공무원도 10명에 달했다. 2003년 김포·경단·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무원 27명이 포함된 1만5000여 명의 투기 사범들이 붙잡혔다.

다시, '우트와트'

이파트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19세기 영국의 에벤저 하워드 역시 당연히 사람들의 투기를 예상했었다. 그는 유명한 책 '내일의 전원도시'에서 과밀과 오염의 도시가 아닌 농촌과 도시를 결합한 '전원도시'(Garden Cit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토지공유제'가 그 구상의 근간이었다. 공공재(公共財)인 토지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영국에 레치워스나 웰링 등의 신도시를 만들어 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계발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과세, 기계발명에 대해서는 개발권의 '유상 국유화'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발을 장려하는 '용도지역제'의 폐지, 공공사업 토지 취득 절차 간소화 등도 주장했다. 진보는 정책으로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근본적인 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고



임원식
시인·한국예총광주연합회 회장

광주시는 작년 6월에 '광주문화예술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시각예술, 인문역사, 공연예술, 콘텐츠 등 4개 분과위원회의로 나누어 활동을 개시했다. 광주문화예술미래위원회의 결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미래를 위해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차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거쳐 최근엔 광주문화예술미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차 뒤 많은 것을 느꼈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 또는 소극성'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광주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그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추진 경과와 성과를 간과했거나 잘 모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러한 비판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향해 이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광주문화예술미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 중 골짜기한 것만 예를 들어도 광주시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무 료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4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